



6일 경기 성남 남서울골프장에서 열린 한국프로골프 겸 아시아프로골프투어 GS칼텍스매경오픈 마지막날 김경태가 힘차게 아이언 샷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 그린 '김경태 돌풍'

한국프로골프의 '슈퍼루키' 김경태(21)가 데뷔전을 포함한 2주 연속 우승이라는 진 기록을 수립했다. 김경태는 6일 경기 성남 남서울골프장(파72·6천969야드)에서 열린 한국프로골프 겸 아시아프로골프투어 GS칼텍스매경오픈(총상금 6억원) 마지막날 5언더파 67타를 쳐 4라운드 합계 18언더파 270타로 랭웬총(중국·13언더파 275타)을 5타차로 꺾고 정상에 올랐다. 우승 상금은 1억2천만원.

데뷔전 이어 매경오픈 석권...2주 연속 우승

KPGA 시드 없는 대기선수서 일약 스타로

김경태는 올해 프로 무대에 뛰어들어 개막전이자 데뷔전인 토마토저축은행오픈에서 정상을 차지한 뒤 이번 대회는 스폰서의 추천으로 출전해 2주 연속 우승컵에 입맞췄다. 프로 데뷔전 우승도 사상 처음이었지만 데뷔전을 포함해 2연승을 거둔 것도 전례가 없다. 재미있는 일은 김경태가 아직 '대기 선수'의 신분이라는 사실이다. 김경태는 작년 투어 카드를 확보할 수 있는 최종 시드전에 출전하지 못했으나 아시아안게임에 국가대표로 참가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감안, 한국프로골프협회(KPGA)는 대기 순위 21번을 부여했다. 143명의 시드 확보 선수 가운데 21명이 출전을 하지 않아야 대회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다.

김경태는 벌써 2연승을 거뒀지만 올 시즌에는 신분의 변동은 없다. 시드가 없는 대기 순위 선수가 우승했을 때 당해 시즌에 시드를 준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비록 김경태는 시드가 없지만 올해 예정된 17개 대회의 대부분을 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것이 KPGA측의 설명이다. 상금 5억원 안팎의 굵직한 대회는 스폰서의 추천으로 출전할 수 있고, 나머지 대회도 외국인 시드 확보자들과 영구 시드권 확보자, 해외파들이 빠지만 대기 순위 21번까지 충분히 기회가 보장된다는 것. 이날 경기는 중국 골프의 기대주 랭웬총과 김경태가 벌인 사실상의 매치플레이였다. 3라운드까지 1타차 단독 선두였던 랭웬총은 이날 1타를 잃어 5타를 줄인 김경태에

게 역전 우승을 허용했다. 랭웬총과 동반 플레이를 펼친 김경태는 4번홀(파5)에서 나란히 버디를 작성한 뒤 10번홀(파4)에서 버디를 추가, 파에 그린 랭웬총과 동타를 이겼다. 기회를 노리던 김경태는 11번홀(파3)에서 버디를 추가한 데 비해 랭웬총이 보기를 저질러 2타차로 뒤집었다. 흔들린 랭웬총은 13번홀(파4)에서 다시 보기를 범했지만 김경태는 파를 지켜 3타차로 앞서나갔다. 랭웬총은 14번홀(파5)에서 버디로 1타를 만회했으나, 김경태는 15번홀(파4)에서 어려운 2m짜리 내리막 버디퍼트를 성공시켜 다시 3타차로 달아났다. 김경태는 16번홀(파5)에서 두번째샷을 그린을 공략, 그린 주변에서 침착으로 홀에 1m 안팎의 거리에 붙인 뒤 버디를 추가, 4타차로 간격을 벌려 우승 안정권에 들었다. 김경태는 17번홀(파3)에서 랭웬총과 나란히 보기를 했으나 18번홀(파4)에서 다시 2m가 넘는 내리막 버디퍼트를 추가, 확실한 '팬 서비스'를 했다. 뉴질랜드 유학생인 아마추어 이진명(17)이 이날 7언더파 65타의 데일리베스트샷을 휘둘러 함께 9언더파 279타로 3위에 입상했고, 최광수(47·동아제약)와 아마추어 국가대표 김비오(17·신성고), 이승호(21·투어 스테이지)가 함께 6언더파 282타로 공동 4위에 올랐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KIA, 삼중살 불명예...7위 추락



한화에 5-13 대패...3연패 허덕

프로야구에선 위기 뒤엔 반드시 기회가 찾아오고, 기회를 잡지 못하면 위기를 맞이한다는 속설이 있다. 그런데 그 속설이 제법 잘 들어맞는다. KIA-한화전이 열린 6일 대전구장. KIA는 1회초 무사 1,2루 득점 찬스를 잡았다. KIA벤치는 다음타자 홍세완에게 희생 번트를 지시했지만 실패했고, 작전을 강공 방법으로 변경했다. 그러나 홍세완은 유격수 앞 땅볼을 때려 2

루수-1루수로 이어지는 병살타로 고개를 숙였고, 2루수자 장성호가 3루를 밟은 뒤 홈을 노리다 1루수 김태균의 송구로 런다운에 걸려 태그 아웃됐다. 26년 한국프로야구에서 44차례에 불과한 보기 드문 '트리플 플레이(삼중살)'가 나온 것이다. 올 시즌 첫 번째이자, 프로통산 45번째. KIA는 이날 대전구장에서 계속된 2007 삼성 PAVV 프로야구 한화와의 대결에서 만루홈런 등 홈런 4방을 얻어맞고 5-13으로 대

패, 3연패의 늪에 빠졌다. 시즌 성적도 7위로 추락했다. 반면 한화는 KIA와의 3연전을 모두 잡으며 시즌 6연승을 달렸다. KIA선발 이대진은 4.2이닝동안 7피안타로 7실점, 패전투수(2승 3패)가 됐다. 이 밖에 삼성은 양준혁의 홈런 두 방을 앞세워 롯데(2-0)를 꺾고 지긋지긋한 7연패의 사슬을 끊었고, 현대는 SK의 추격을 뿌리치며 7-3으로 완승, 49세 생일을 맞은 김시진 감독에게 승리를 선물했다. 잠실 라이벌전 선 두산이 LG에 8-2로 승리했다. 한편 KIA는 지난 5일 대전구장에서 열린 한화와의 대결에서도 홈런 3개 등 장단 14안타를 내주며 3-15로 대패했다. /박진기기자 lucky@kwangju.co.kr

“여자대회에만 전념”

위성미 코치 레드베터 “자신감 회복 급선무”

지난해 남자프로대회에서 잇따라 쓴맛을 봤던 위성미(18·나이기골프)가 당분간 여자대회에만 전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위성미의 코치를 맡고 있는 세계적인 골프 교습가 데이비드 레드베터는 “위성미는 당분간 여자대회에만 출전할 계획이며 내년에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회원 가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6일(한국시간) 말했다. 레드베터는 “(남자대회에서 실패를 거듭하면서 잃었던) 자신감을 되찾은 게 급선무”라면서 “LPGA 투어에 전념한다면 연간 8~9승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성미가 남자프로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해왔던 레드베터는 그러나 이번에는 꼬리를 내리는 모습이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김미현 선두와 1타차 JLPGA 전미정 2주 연속 우승

LPGA 씬그룹챔피언십 2R

김미현(30·KTF)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씬그룹챔피언십 둘째 날 데일리베스트 샷을 날리며 선두와 1타차 공동 5위로 도약했다. 김미현은 6일(한국시간) 미국 오클라호마주 브로크에로우의 시더릿지골프장(파71·6천602야드)에서 열린 대회 2라운드에서 3언더파 68타를 쳐 합계 3언더파 139타로 첫날 공동 22위에서 순위를 크게 끌어올리며 우

승권에 진입했다. 김미현은 이날 3.4번홀에서 잇따라 보기를 범해 출발이 불안했으나 9번 홀에서 버디를 잡은 뒤 17, 18번홀에서 잇따라 버디를 속아내는 등 후반에만 4개의 버디를 뽑아내는 뒷심을 발휘했다. 첫날 단독 선두였던 니콜 카스트랄리(미국)를 포함, 라일리 랭킨(미국) 등 4명이 합계 4언더파 138타로 공동 1위를 형성했다. 2라운드에서 공동 5위였던 박세리는 이날 버디 4개와 보기 4개를 맞바꾸며 타수를 줄이지 못해 합계 2언더파 140타로 공동 7위로 추축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PGA 와코비아챔피언십 3R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시즌 상금 100만달러 돌파를 노리는 '탱크' 최경주(37·나이기골프)가 와코비아챔피언십 셋째 날 공동 20위까지 상승했다. 최경주는 6일(한국시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의 케일할로골프장(파72·7천438야드)에서 열린 대회 3라운드에서 3언더파 69타를 쳐 합계 3언더파 213타로 공동 20

위로 뛰어올랐다. 최경주는 이날 버디 4개를 뽑아내고 보기는 1개로 막으면서 3타를 줄여 둘째 날 공동 35위에서 15계단이나 도약했다. 최경주는 이번 대회에서 10위 이내에 입상하면 시즌 상금 100만달러를 넘어선다. 재미교포 앤서니 김(21·나이기골프)도 이날 3타를 줄여 합계 6언더파 201타로 공동 8위를 유지, 시즌 네번째 톱10 입상을 바라봤다. 로리 사바티니(남아공)가 이글 1개와 버디 6개로 8언더파 64타를 작성, 코스레코드와 동타를 치면서 합계 11언더파 205타로 단독 1위로 도약했다. /최재호기자 lion@

전미정(25·투어스테이지·사진)이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 투어에서 2주 연속 정상에 올랐다. 전미정은 6일 일본 도쿄 요미우리골프장(파72·6천523야드)에서 열린 살몬과 스웨이드레이디스골프토너먼트 마지막 날 1언더파 71타를 쳐 4라운드 합계 6언더파 282타로 우에다 모모코(일본·3언더파 285타)를 3타차로 따돌리고 우승컵을 안았다. 우승 상금은 1천800만엔. 전미정은 지난주 JLPGA 투어 야시마켄스에서 우승한 뒤 2주 연속 정상에 올랐고, 통산 5승을 수확했다. 전미정은 역대 JLPGA에 진출한 한국 선수의 통산 70번째 우승컵의 주인공이 됐다. 이지희(28)가 합계 2언더파 286타로 카리 웹(호주)과 공동 3위에 입상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